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박 정 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사람을 키우고 작은 경제활동이 모여 지역살림을 살리고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대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 박정현 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과의 질문 · 답변 자료를 1문 1답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박정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대전의 유쾌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박정현 의원입니다.

벌써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올해 열심히 활동해주신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고 있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권선택 시장

예, 그렇습니다.

◎ 박정현 의원

올해 보니까 대전시가 여러 상을 수상을 했네요?

◇ 권선택 시장

예, 많이 했습니다.

◎ 박정현 의원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도 1위를 하셨고요.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 권선택 시장

예.

◎ 박정현 의원

축하드립니다.

◇ 권선택 시장

감사합니다.

◎ 박정현 의원

보니까 일자리경진대회 등 해서 거의 50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 권선택 시장

예.

◎ 박정현 의원

열심히 일하셔서 받으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권선택 시장님과 공직자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권선택 시장

감사합니다.

◎ 박정현 의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충청권광역철도망 1단계사업 예타가 통과가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권선택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택 시장

감사합니다.

◎ 박정현 의원

떨리시지요? 저도 많이 떨립니다. 너무 조용조용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 의원은 권선택 시장님과 함께 대전시 성평등 정책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더 나은 성평등 도시가 되기 위해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대전 최초로 여성 정무부시장을 임명 하셨어요?

◇ 권선택 시장

예, 그렇습니다.

◎ 박정현 의원

이제 답변이 썩썩하게 나오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권선택 시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시민들 또 여성분들, 여성계에서 대전시를 성평등 도시로 앞당길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깨가 조금 무거우시지요?

◇ 권선택 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오늘 시장님과 토론을 통해서 그간에 잘했던 것은 더 잘 하려고,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같이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해서 정말 전국에서 으뜸가는 성평등 도시를 만드는 대안을 좀 같이 모색하고 싶습니다.

◇ 권선택 시장

감사합니다.

◎ 박정현 의원

대전시의 성평등 지표가 높지요?

◇ 권선택 시장

예, 높습니다.

◎ 박정현 의원

PPT 띄워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성정책연구원 하면 여성가족부가 함께 매년 성평등 지수를 순위로 매기고 있는데요.

(14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대전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013년도 거라서, 저쪽에 잘 안 보이시지요?

대전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영역 및 세부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4	9	65.3	10	67.5	6	68	7	70.3	6
의사결정	17.7	8	21.2	7	21.8	8	23.2	6	25.3	2
교육/직업훈련	94.1	7	94.2	7	94.3	7	94.4	7	94.5	7
복지	68	3	71	3	74.1	3	77.1	3	78.6	1
보건	96.5	6	97.2	5	7.9	2	97.4	4	97.5	4
안전	58.2	15	63.3	9	60.9	13	62.6	12	62.5	9
가족	53.2	11	58.1	4	63.2	3	65.4	2	66	3
문화/정보	84.6	2	83.2	4	81.6	8	85.6	3	90	1

주 : 각 연도는 동계성상기준

◇ 권선택 시장

관참습니다.

◎ 박정현 의원

저 앞에 있습니다. 보니까 경제활동에서도 17개 광역시 중에 6위 했으면 나쁘지 않고요. 특히 의사결정 부분은 우리가 전국에서 2위니까 아주 높습니다. 아마 여성 의원들이 많아서

카운트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데 좀 보완해야 될 게 안전 부분은 계속 조금 낮아요, 그렇지요?

◇ 권선택 시장

예.

◎ 박정현 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도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만드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평가는 민선 6기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평가는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 거라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감안하셔서 추진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순위가 우리가 높기는 하지만, 경제활동 부분도 점수로 보면 70점 정도인데 6등을 했으니까 사실은 점수로 보면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광역시가 경제활동 부분이나 의사결정 부분이나 이런 데에 점수가 높지 않은 거지요. 이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정책추진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 권선택 시장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경력단절 여성을 불러들이는 전략을, 정책을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정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권선택 시장님 여성관련 공약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봤어요. 넘겨주세요.

민선6기 여성관련 공약

- 맘 편한 여성일자리 창출
- 여성가족정책센터 기능강화(1.6억 ⇒ 4억 X)
- 성주류화 정책 적극 실행
- 여성친화도시 조성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초록펜 학습지원 서비스
- 자율적 공동육아 공동체 육성
-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확대(예산미확보)
- 폭력피해자 인권보호
- 친환경 아토피 어린이집 운영

보니까 물론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여성관련 공약들이 조금씩 있는데 대표적인 공약만 제가 뽑아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부분이 좀 취약하니까 마음편한 여성일자리 창출해서 새일센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일자리를 더 확장하는 것을 하시겠다 이런 정책이 있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센터 기능 강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 권선택 시장

4억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는데 가족센터의 인원을 한 번 증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 2억 3천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까지 치면 아마도 한 3억 5천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표율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를 더 해서 정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원래 권선택 시장님 공약에 여성정책연구원 만드는 공약이 있었는데 저것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 권선택 시장

우선은 기관 만드는 공약이 꽤 있습니다. 가족재단도 있었고 정책연구원도 있었고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재정상 쉽지가 않고 분위기상 기관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우선은 개혁 차원에서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자 그렇게 방향을 수정해서 가족센터에 대한 인력도 보강을 했고 연구사업을 더 진행해서 그러한, 설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 박정현 의원

여성정책연구원 만드는 공약 자체를 없애신 것은 아닌 거지요?

◇ 권선택 시장

폐기시킨 것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그것보다는 이 정책이 낫겠다, 그래도 최소…….

◎ 박정현 의원

현실 가능한 것들을 우선 추진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 권선택 시장

예, 최소 예산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 박정현 의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확대 부분은 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공약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확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의회로 넘어온 민선 6기 공약이행 추진 자료에 보면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권선택 시장

보육예산이 한 3천억 됩니다. 그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넘어온 예산이 대부분이고 금년에 반영된 것은 선생님에 대한 처우개선 2만 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원장님들에 대해서 2만 5,000원을 일단 책정했습니다. 그것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정현 의원

타 시·도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타 시·도가 따라올 수 있도록 더 획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약 중에 성주류화 정책 적극 실행이라는 공약이 있고요. 오늘 본 의원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체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친환경 아토피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 권선택 시장

그것도 정책과정에서 실효성 여부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서 아토피 관련 학교를 특정화시키느냐 아니면 아토피에 관련된 정책을 모든 어린이집에서 조금이라도 수혜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맞겠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후자 쪽으로 잡고 내년도에 아토피에 대한 교육, 특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박정현 의원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서 잘 추진할 것이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선택 시장

예.

◎ 박정현 의원

제가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대전시에다가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다 내놔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요. 시장님이 추정하시기에 대전시의 예산 중에 보통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권선택 시장

여성정책예산이라는 것을 특정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예산을 여성예산으로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범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과로 치면 여성 청소년과 등등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순수하게 협의로 잡으면 한 248억을 했고……. 아닙니다, 253억 했고요, 내년도에는 약 27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박정현 의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랑 좀 다르네요. 넘겨줘 보세요.

대전시 일반회계 대비 여성정책 예산비율

단위 : 천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일반회계	2,239,538,000	2,426,987,000	2,552,150,000	2,612,699,000	2,800,685,000
여성정책예산	11,576,768	15,068,319	16,290,865	16,575,891	18,548,364
비율	0.5%	0.6%	0.6%	0.6%	0.7%

◇ 권선택 시장

예.

◎ 박정현 의원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대전시에다가 보건복지여성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예산들은 다 뽑아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넘어온 게 이 예산입니다. 2012년도에 115억 정도 됐던 예산이 어쨌든 내년도에는 185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전시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1%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가 안 되네요?

◇ 권선택 시장

개념적으로 1%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성정책이 여성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접적인…….

◎ 박정현 의원

아니, 이 예산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국에 해당되는 예산들도 넘어 왔어요.

◇ 권선택 시장

제가 파악하는 것은 항목을 말씀드리면 여성폭력예방, 여성 인력개발, 여성정책사회참여, 여성복지시설 등등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것만 따져서 253억, 내년에 272억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 박정현 의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 주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더 늘은 예산을 갖고 계시니까 그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270억 정도 되면 한 1% 정도 되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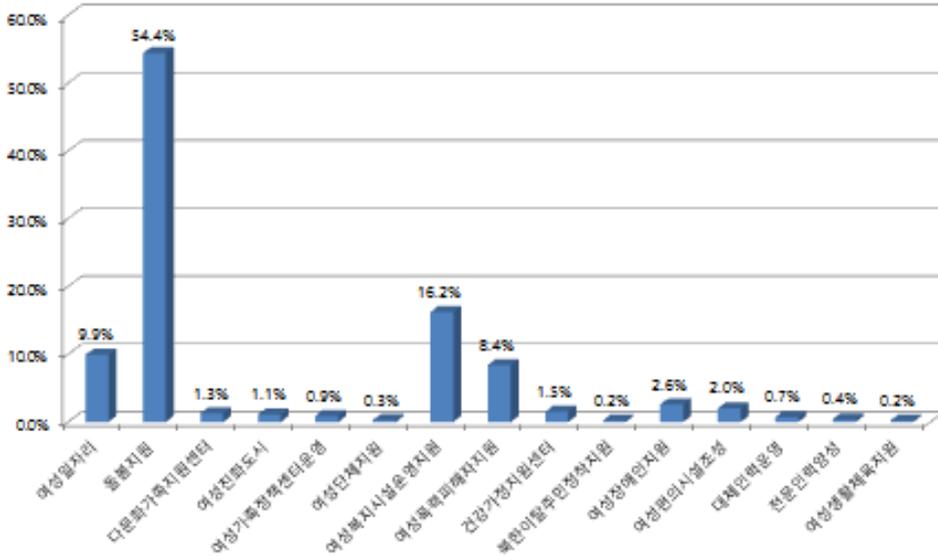
◇ 권선택 시장

예.

◎ 박정현 의원

1% 가까이 되겠네요. 어쨌든 본 의원이 저한테 넘어온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표를 주세요.

2016년 여성정책예산 분석



그랬더니 이렇게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돌봄예산이 사실은 가장 많아요, 54%니까, 돌봄예산이 가장 많고 그런데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예산액으로 따지면 퍼센티지는 지금 전체 여성정책예산 가운데 굉장히 높게 나와 있지만 실제 예산을 따지면 저한테 넘어온 것은 어쨌든 1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넘어 왔으니까 전체 포션 중에서는 굉장히 아작은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성일자리 관련 예산이 9.9%니까 한 1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늘 관심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도 보니까 한 2.6%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여성예산으로 넘어온 부분을 제가 분석한 것이고요. 나머지 여성단체 지원하고 여성친화

도시 만들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건강가정 지원하고 이런 예산들이 죽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 전체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 권선택 시장

예, 더 늘려야지요.

◎ 박정현 의원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여성이라고 딱지가 붙어있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예산만은 아니지요. 여성관련 예산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고 대상이 되는 예산이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찾아본 것은 어쨌든 여성이라는 부분에 국한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성 주류화가 공약에 있지 않습니까?

◇ 권선택 시장

예.

◎ 박정현 의원

중요한 게 모든 정책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성주류화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 권선택 시장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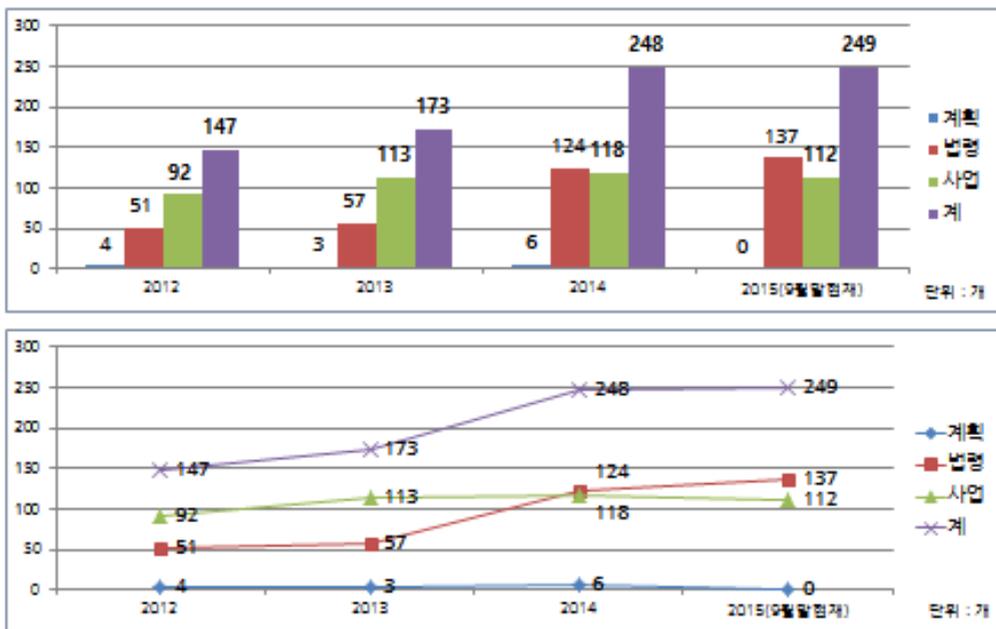
◎ 박정현 의원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도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그리고 성별통계 이렇게 3가지 도구를 갖고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성관련 예산도 중요하지만 대전시가 성인지예산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하고 있는지가 결국은 성별 격차를 줄이는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넘겨주세요.

본 의원이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잘해야지 성 격차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실제 민선 6기에 대전시민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별 격차를 줄여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한 대전지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조금 더 앞으로 확 나가서 더 많은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추이



특히 3년 이상 주기적 계획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물론 10년 단위 계획도 있고 해서, 제가 죽 뽑아보니까 아직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는, ‘0’ 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2개의 계획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고 있는 계획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획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사업 부분도 사실은 사업소가 중요한 것보다 제대로 된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적긴 합니다, 그렇지요?

◇ 권선택 시장

예.

◎ 박정현 의원

2015년도에 112건이니까요, 전년도보다 조금 낮아지기도 했고 조금 적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님 성주류화 공약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황은 이런데 갖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 권선택 시장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도 도입한 지 10년 됐습니다. 아직도 공직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석 체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표도 많고 대상사업 선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정책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공직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또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5급 공무원 4시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고위직까지 확대해서 시켜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성인지사업으로 연동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과거 64건인데 뽑아보니까 84건으로 늘었더라고요. 이런 것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분석의 기법이나 체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쉽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그룹에 젠더거버넌스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

에서 다양한 집단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많이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보니까 특정정책에 대해서 중점 분석할 수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도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시도 계제 나온 김에 특정과제로 정해서 특정적으로, 연구 시범적으로 하면 이러한 효과가 파급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제도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정현 의원

훌륭하십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이따가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권선택 시장

예, 그러시죠.

◎ 박정현 의원

넘겨주시면,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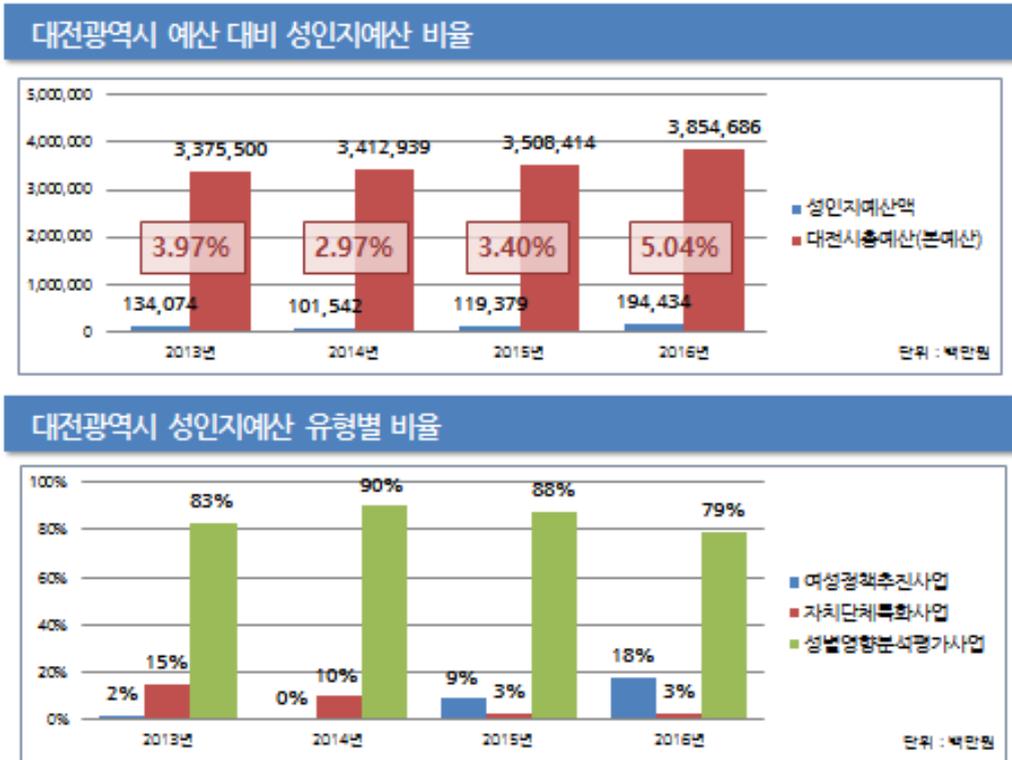
단위 : 개/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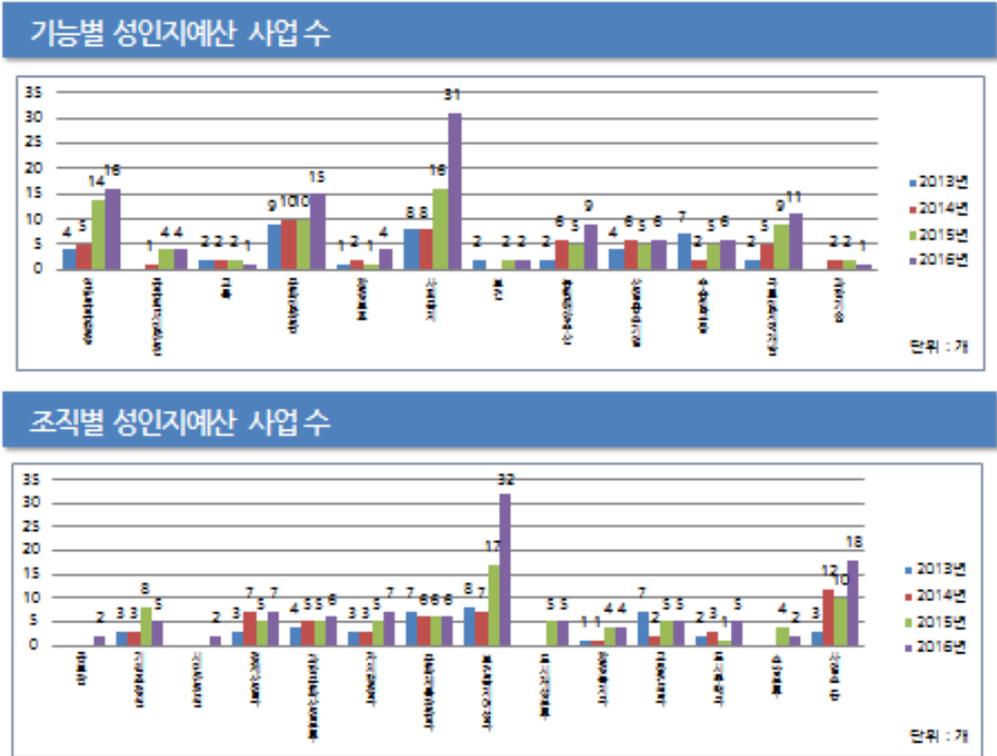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여성정책 추진사업	1 2%	474	0	0	7 9%	20,487	19 18%	20,920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34 83%	99,862	44 90%	97,875	66 88%	93,892	84 79%	170,781
자치단체 특화사업	6 15%	33,773	5 10%	3,672	2 3%	5,000	3 3%	2,733
합계	41	134,109	49	101,547	75	119,379	106	194,434
대전시예산 (본예산)		3,398,702		3,806,647		3,508,414		3,854,686
본예산대비 성인지예산		3.9%		2.7%		3.4%		5.0%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인지예산도 전체 대전시 예산의 한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유형별로는 여성정책이 있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고 성별영향분석이 있는데 여전히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시장님께서 봐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성인지예산을 기능별과 조직별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별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의 모든 것을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이 커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 권선택 시장

아무래도 책임자급의 관심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복지 쪽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더 가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다른 실·국도 이것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관심을 가지면 저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들의 태도, 관심도, 의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정현 의원

그러니까 그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신 분은 시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권선택 시장

알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물론 성별영향분석평가관이 보건복지여성국장이기 때문에 그 국에 해당돼 있는 사업들이 많긴 한데 그것을 뛰어 넘어서 권선택 시장님께서 대전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확장을 요구하고 국·실장들에게 그 책무를 계속 부여하시면 예산도 많아지고 평가 대상도 많아져서 성평등 도시를 만드는 데 훨씬 더 쉽게 되지 않을까요?

◇ 권선택 시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산업국이나 문화체육국, 과학문화산업본부나 교통건설국 같은 곳에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수가 훨씬 많이 나와야지 전체 포션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1%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5%니까 10% 정도 이상은 내년 이렇게 해서 한 2년 사이에 2배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겠다, 이런 약속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권선택 시장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약 40%가 늘었습니다, 개수로요. 예산으로 치면 63%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 박정현 의원

예산은 늘었는데요, 성인지예산은 물론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 권선택 시장

예, 알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그래서 2017년 예산을 할 때는 최소한 2배는 만들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 권선택 시장

내년도는 7% 될 것입니다.

◎ 박정현 의원

10% 정도는 올려주셔야지요?

◇ 권선택 시장

예.

◎ 박정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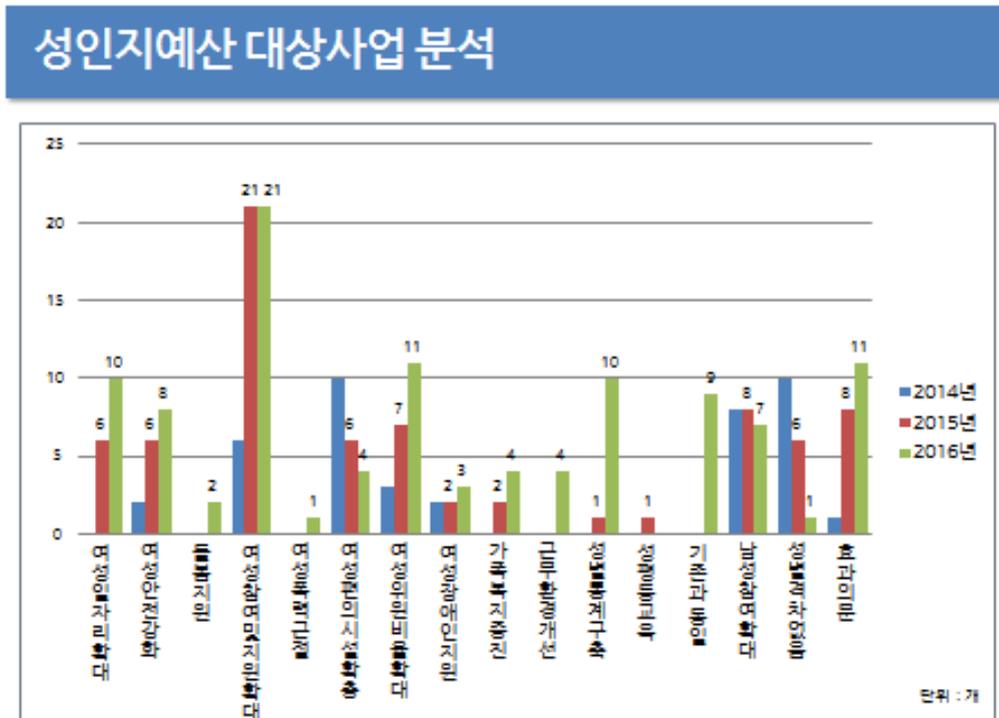
약속하신 겁니다.

◇ 권선택 시장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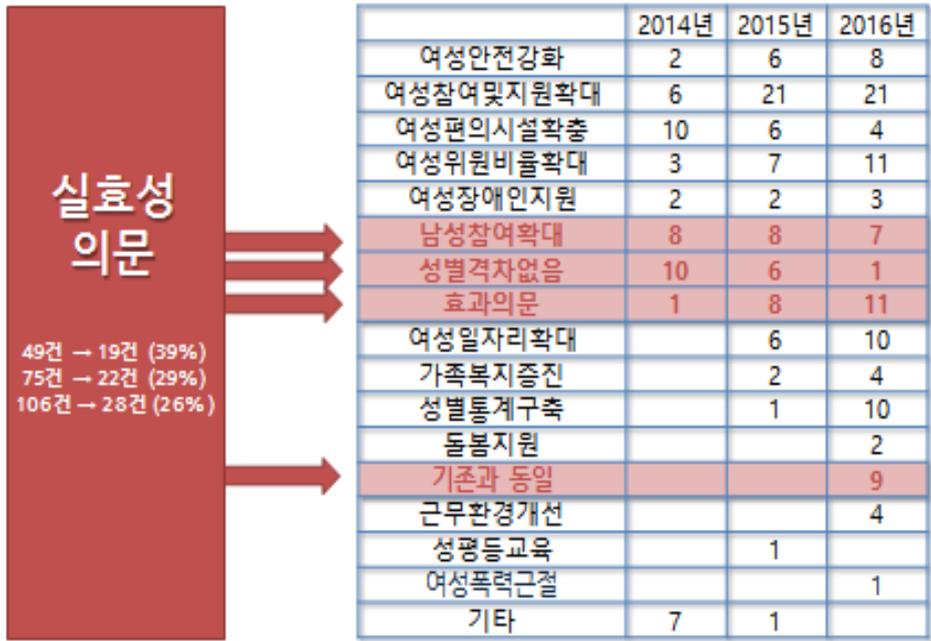
◎ 박정현 의원

실·국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열심히 같이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성인지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들 조금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분석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여성일자리 부분, 여성안전, 돌봄 그리고 여성참여 지원확대, 편의시설 확충, 여성위원 비율확대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쉬운 것이 여성참여나 지원확대나 쉽기 때문에 개수가 많고요.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확대가 권선택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효과가 의문인 것도 많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성인지예산대상사업 분석



보니까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보이는 게 2014년도에는 성인지 예산 49건 중에 19건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물론 본 의원이 분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39%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는 10% 정도 줄었습니다, 29% 정도 되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조금 더 줄긴 했는데 여전히 26% 정도가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관심을 훨씬 가지시고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 내용 중에 남성 참여 확대 부분이 여전히 죽 나와 있는데,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특정한 부서의 사업을 거명해서 조금 송구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컨택산업이라는 게 있지요?

◇ 권선택 시장

예, 있습니다.

◎ 박정현 의원

텔레마케터들 양성하는 사업인데 여기가 대개 여성들입니다, 거의 99%가 여성일 것입니다.

◇ 권선택 시장

예, 그렇습니다.

◎ 박정현 의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남성참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남성,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노동 강도는 세고 박봉인 곳이기 때문에 대개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가는 거고 남성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다, 물론 특정한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는 규정들이, 내부지침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여성들의 낮은 지위를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컨택산업을 하려면 거기서 고생하는 여성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잡는 게 저는 훨씬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선택 시장

컨택산업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대부분 여성종사자가 많은데 여성이 많다는 이유로 “성인지예산이다, 또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교육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성격이나 특성에 맞도록 선정이 되고 관리돼야지 그냥 “여성인 많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관련 있어, 성인지예산이야” 하는 도식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뒀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개선이 잘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 권선택 시장

예.

◎ 박정현 의원

넘겨주시면,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면 조례상 다음 연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보고서, 이것은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종합보고서에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하려면 이런 과제가 있다, 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제시한 거고 물론 본 의원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보고서

-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연동 필요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 필요
- 3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 4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선정 필요
- 5 인재개발원을 통한 상시 교육 필요

그래서 앞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참 어렵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했다고 해서 특별히 본인에게 좋은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 3년 주기로 공직자들은 바뀌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권선택 시장

예, 우선 이 기능 자체가 예산기능은 기획조정실 기능이고 성별영향평가 기능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합니다. 연동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 그런 역할을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시로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담직원 또 전문직위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업무를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안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실 것입니까, 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권선택 시장

예, 조직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라든지 업무의 전념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인력을 배치한다면 예산 쪽은 기획조정실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평가기능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에도 그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게 쌍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 박정현 의원

잘 연동돼서 해야지 제대로 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선택 시장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검토하시면서, 전담인력도 중요하긴 한데 혹시 전문가 중에 개방적으로 들 수 있는지의 여부도 같이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선택 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공무원 인센티브 꼭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인사고가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가요?

◇ 권선택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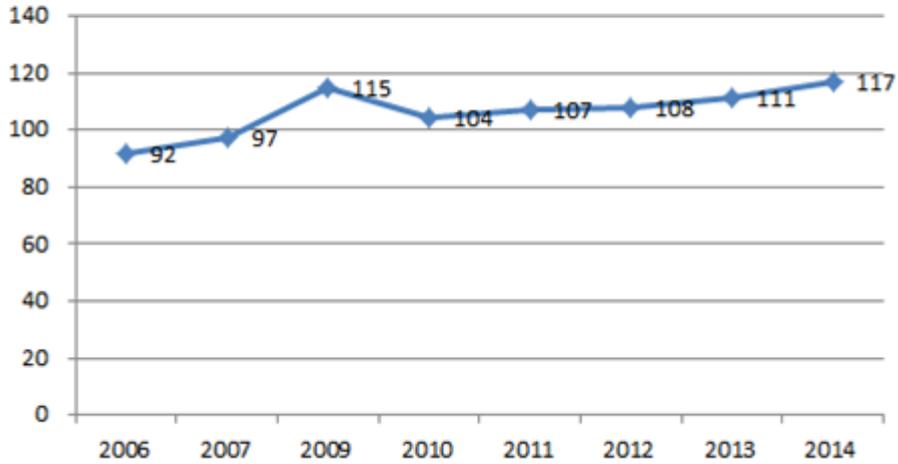
우리 시정업무가 가짓수가 많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인센티브를 주자는 입장을 많이 취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업무이고 앞으로 또 개발해야 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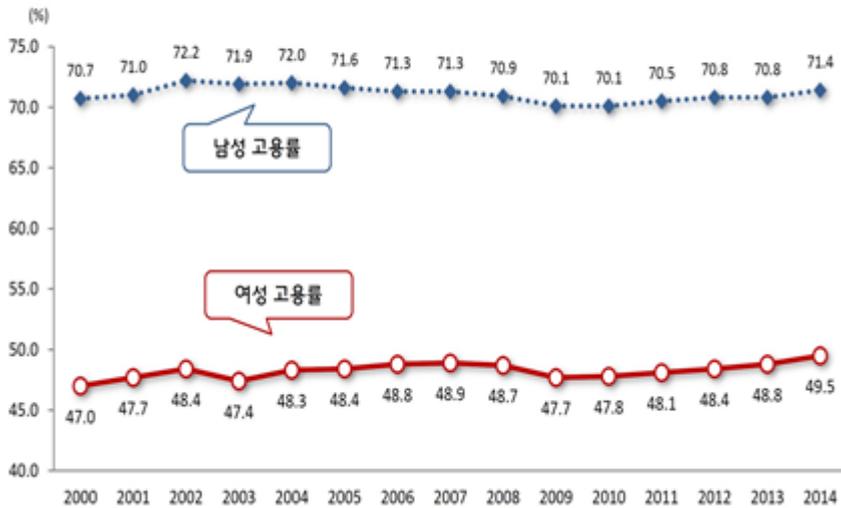
시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시면 승진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 선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앞서 시장님께서도 제대로 된 과제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간이 지금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나서 몇 가지 제안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우리나라 성격차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에 있어서 성 격차가 심한 것하고 그리고 권한척도에서 여성이 낮은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넘겨주시면, 이거 보시면 2015년도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나온 고용률 성 격차입니다. 남성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지금 좁혀지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23.7%로 벌어졌던 게 2014년도에 21.9%로 결국 15년 동안에 1.8%밖에 격차가 안 줄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격차가 지속적으로 가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을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계 성격차 지수 우리나라 순위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통해 본 고용률 성격차



◇ 권선택 시장

예.

◎ 박정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일자리 부분, 앞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일자리 부분은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성만 관련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일자리 정책은 남녀가 다 공히 하는 거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간다면 성별 격차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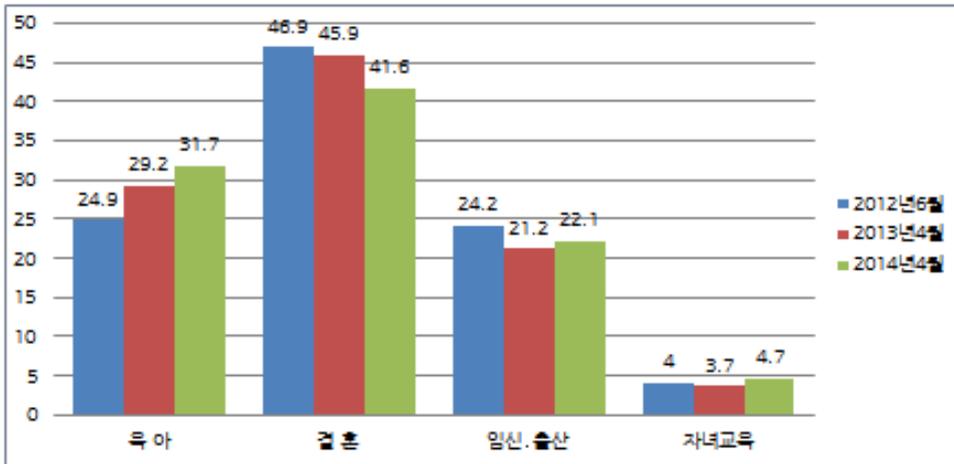
◇ 권선택 시장

아무래도 대전시의 성평등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경제와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거기를 정해 놓는다면 과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일자리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안전 부분도 있는데, 하나 더 넘겨주세요.

경력단절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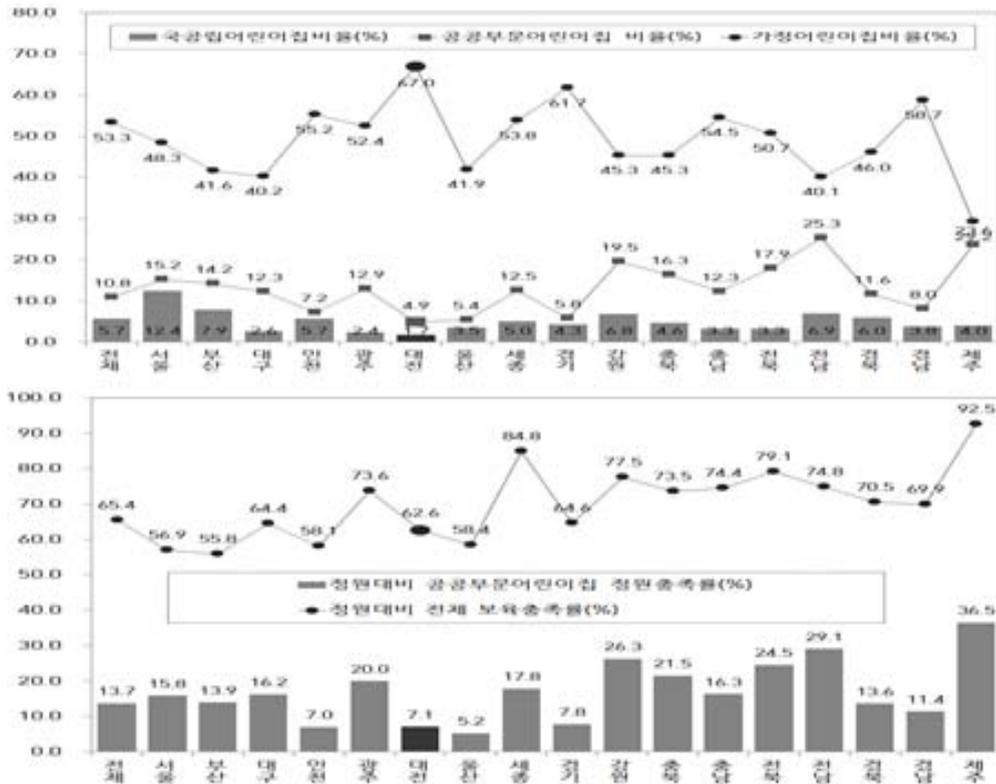
보면 경력단절 아까 하셨는데 경력단절 사유가 육아 부분이 계속 늘고 있어요.

결혼은 오히려 줄고 있고 임신, 출산은 비슷한데 육아 부분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여성들이 일하다가 그만

두게 된 주요한 원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시설이나 공공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넘겨주시면, 대전시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1.7% 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고 공공 부분, 국·공립, 민간, 법인 다 해도 지금 얼마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선택 시장님 공약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하나씩 만든다는 공약이 있던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선택 시장

금년에도 하나 했고 내년도에도 하나 있습니다. 유성구 쪽에 있고, 국고내시가 들어와야 잡기 때문에 안 잡혀 있고요.

◎ 박정현 의원

우리는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거지요?

◇ 권선택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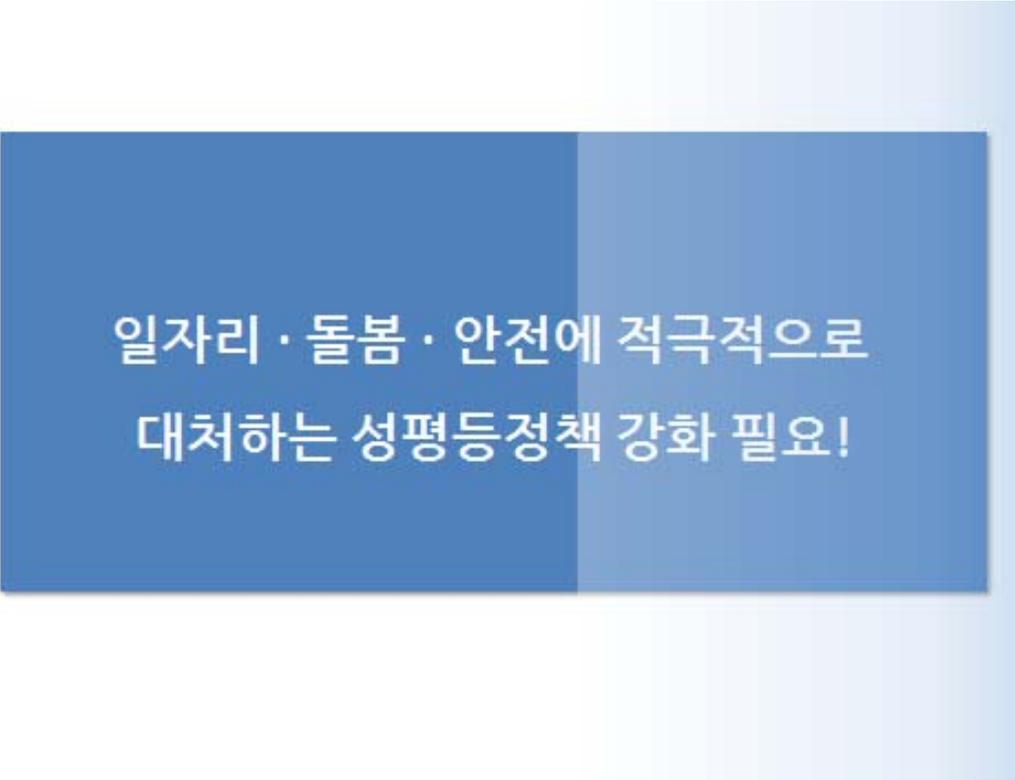
매년 하나입니다.

◎ 박정현 의원

매년 하나씩 해서는 이 비율을 높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거라도 지속적으로 가야지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거나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더 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자리나 돌봄이나 안전 부분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는 성평등정책으로 우리 정책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성정책, 성평등정책은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일자리·돌봄·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평등정책 강화 필요!

◇ 권선택 시장

알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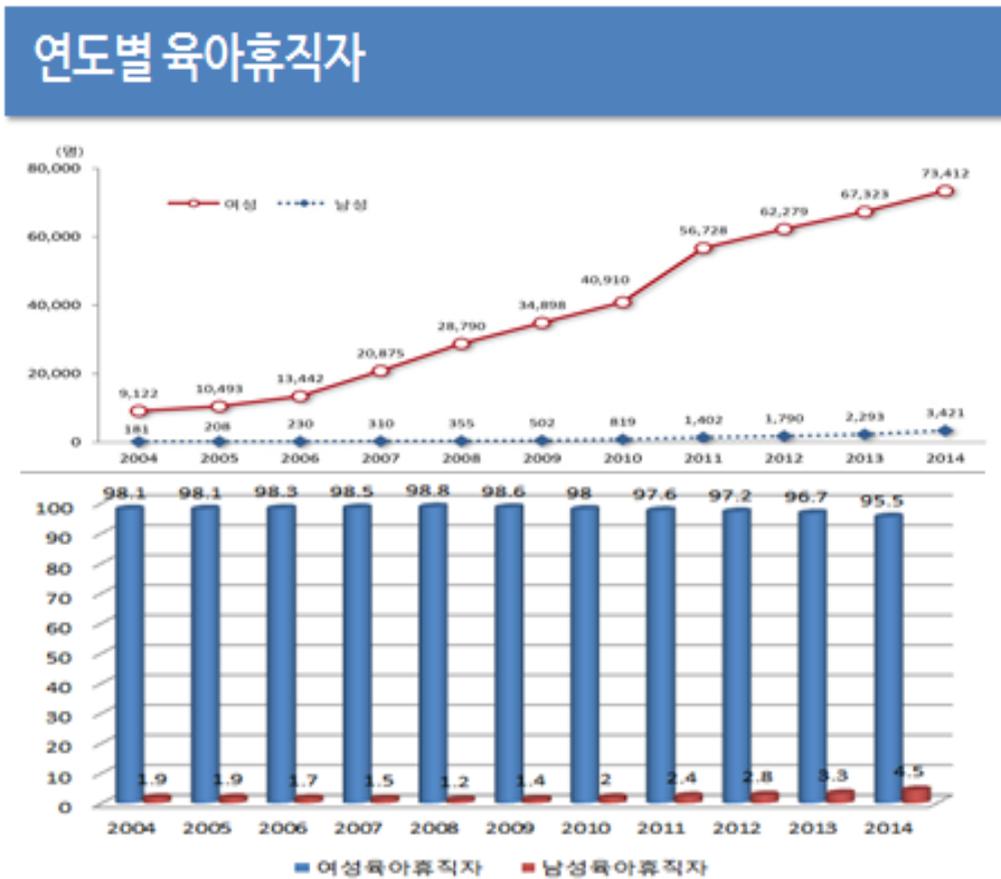
넘겨주시면 이것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원수	2명	1명	2명	1명	1명	-
평균 휴직기간	11개월	6개월	12개월	2개월	11개월	-

일·가정양립 부분 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육아휴직자가 굉장히 낮지요.

그런데 지금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하나 더 넘기시면 지금 이것이 대전시의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현황입니다, 대전시에서 받은 현황이거든요. 이것 좀 높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공공 부분에서 정책을 핸들링해 주지 않으면 민간 부분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 1명, 2명 이런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대전시에서 전략적으로 남성육아휴직할당제나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도입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권선택 시장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면 항상 가능한데…….

◎ 박정현 의원

그런데 희망을 안 하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있기 때문에…….

◇ 권선택 시장

그리고 대상자가 시의 남자공무원만 해도 육아휴직할 정도의 나이 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 박정현 의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육아휴직을 독려해서 매년 몇 퍼센트 정도는 육아휴직을 하도록, 그것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면 하겠다는 의사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 권선택 시장

아, 그렇습니까?

◎ 박정현 의원

예, 그런데 제도 자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선뜻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권선택 시장

하여튼 제도가 있는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대전시는 몇 퍼센트 매년 남성 육아휴직을 한다, 이런 것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간이,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할 거고요. 5급 이상 여성, 아까 척도 부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전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5년도에 13.2%입니다, 아시지요?

대전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전체공무원수	여성공무원수	비율	남성공무원수	비율
2014년	2155	569	26.4%	1,586	73.6%
2015년	2158	574	26.6%	1,584	73.4%

	5급이상 공무원수	5급이상 여성공무원수	비율
2014년	388	49	12.6%
2015년	418	55	13.2%

여성공무원의 5급 임명 평균기간 30.8년, 남성 29.2년보다 1.6년 더 걸림

◇ 권선택 시장

예.

◎ 박정현 의원

하나 남겨주세요. 그래서 매년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지금 3차년도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 목표가 14.5%입니다, 55명인데 지금 하려면 60명을 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5명입니다. 연말에 하실 건가요?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0월말	2016년
임용목표	11.7%	12.6%	13.5%	14.5%	15.6%
임용율	10.6% (358명 중 38명)	12.2% (368명 중 45명)	12.8% (392명 중 50명)	13.2% (417명 중 55명) 60명(-5명)	-

◇ 권선택 시장

대전이 5급 이상 비율이 14.4%거든요, 현재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아직은요. 그렇지만 목표에는 미달 되거든요,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박정현 의원

그러니까 인원으로 5명입니다, 5명 더 하실 건지 마실 건지 말씀하세요.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사실 집행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기 남성공직자들은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성공직자 임용 확대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목표치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권선택 시장

6급 공무원 여성비율이 24%이기 때문에 자원이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 박정현 의원

6급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원이 많기 때문에 5급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거지요?

◇ 권선택 시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 박정현 의원

나머지 5명을 채우시는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평생 문화진흥원이 여성가족원으로 바뀌고 지금 북부가 내년 4월이면 문을 열어서 4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이것은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우리랑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라는 기능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되어 있는, 정말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우리 여성가족원이 좀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아까 젠더거버넌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방적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권선택 시장

북부여성가족원이 4월 정도에 개관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층은 코워킹 공간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1개 층은 여성취·창업, 맘스클럽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종전 방식과 달리 정말 여성들이 창업도 하고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정현 의원

마지막으로,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예산 만들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예산 부탁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요?

◇ 권선택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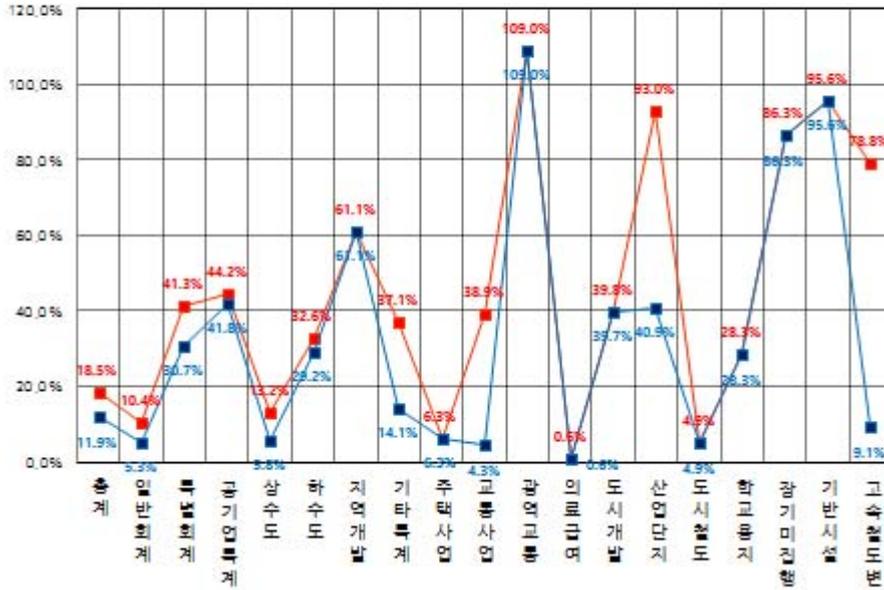
예.

◎ 박정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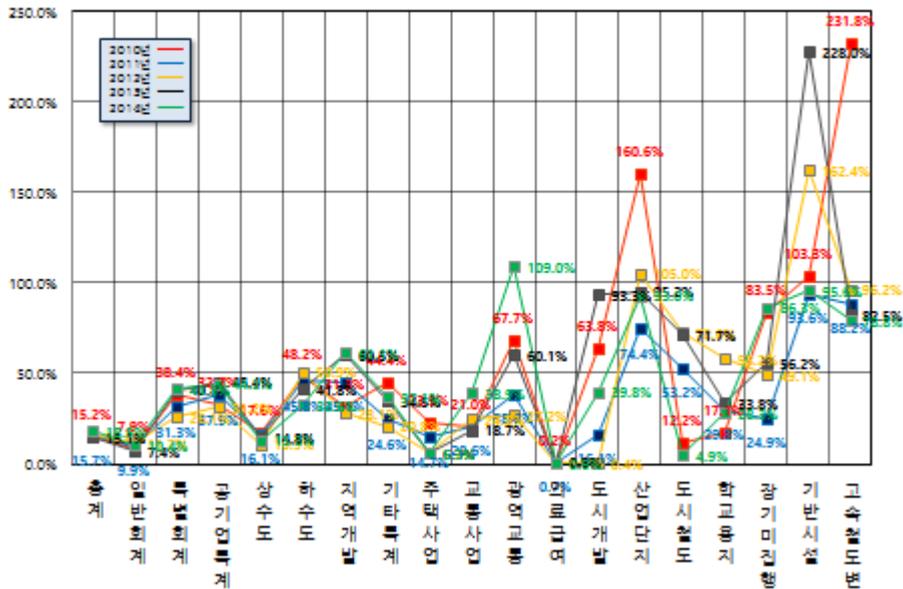
넘겨주세요,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1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 표 좀 봐주세요. 이것이 2014년도 결산을 해서 의회 입법정책실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회계에 잉여금이 10.4%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5.3%인데 지금 특별회계 쪽은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광역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109%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09%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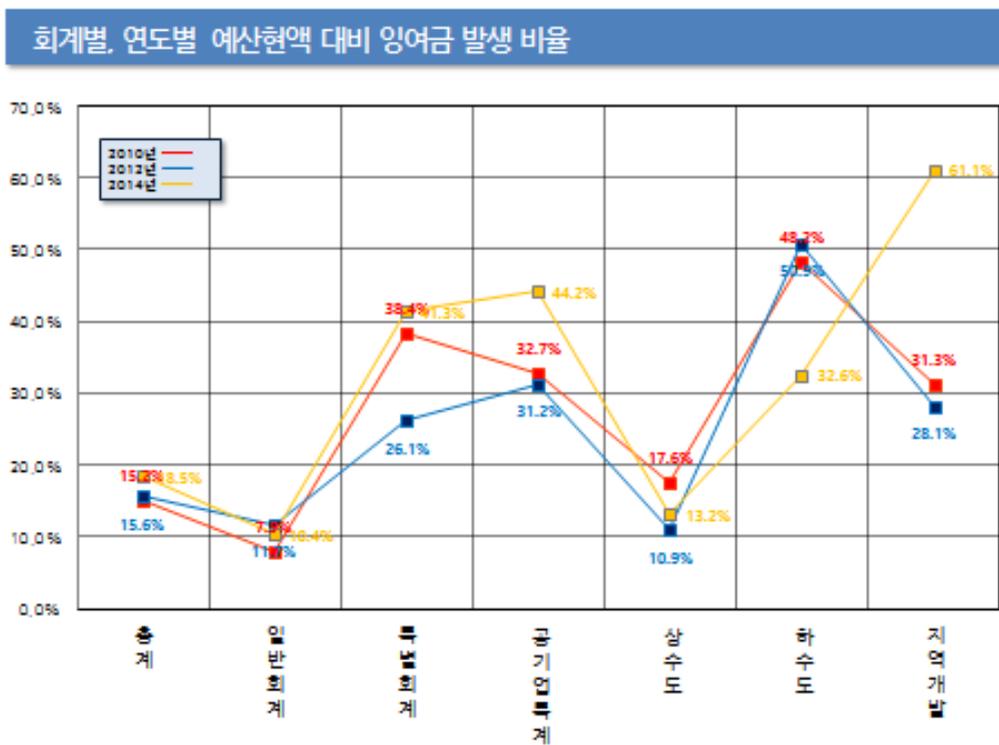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비율



회계별,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 발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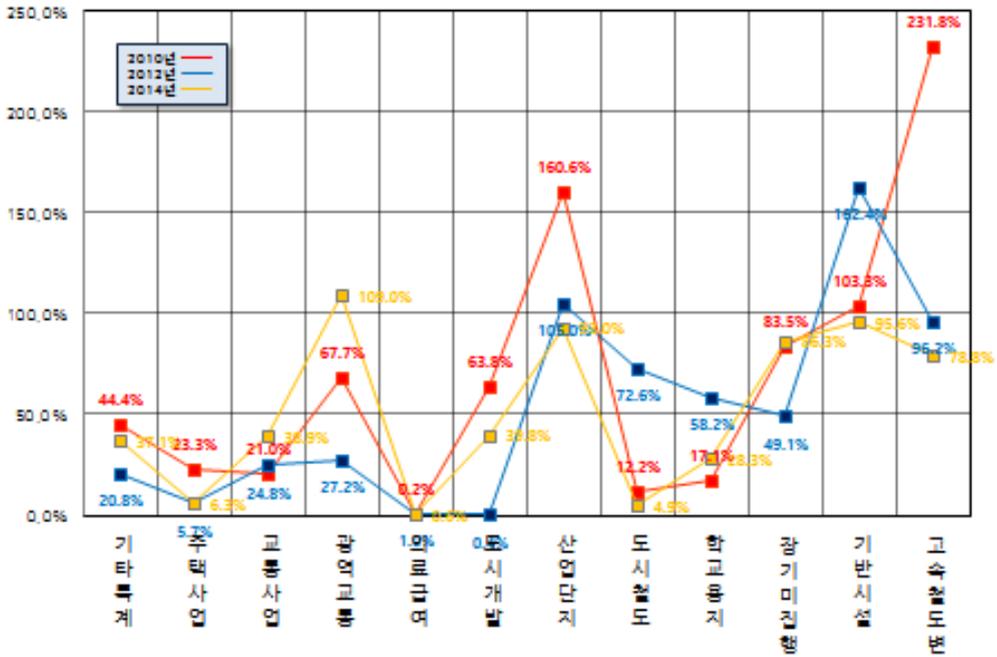


다시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5년 치를 분석한 건데요, 보기가 어려우시지요. 그래서 제가 2010, 2012, 2014 이렇게 해서 잉여금만 분석한 건데 지금 30%에서 60% 이렇게 가고 있고요.



다시 넘겨주시면, 지금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회계의 과도한 미집행률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별,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 발생 비율



◇ 권선택 시장

일반회계하고는 운용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정현 의원

운용원리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 권선택 시장

많이 다릅니다.

◎ 박정현 의원

그런데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 권선택 시장

장기계획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미도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부담금 성격의 세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계잉여금이 안 쓴 돈이 아니고 적립하고 있는 돈입니다.

◎ 박정현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주셔야, 재원이 사장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14시 4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